

‘일자목환자’ 매년 6만명씩 늘어나

앞으로 목을 길게 빼는 자세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다 어깨통증, 두통 등으로 병원을 찾는 ‘일자목증후군’ 환자가 한해 평균 6만명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5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1년~2016년 ‘일자목증후군’ 질환으로 진료 받은 환자는 2011년 239만7000명, 2012년 247만2000명, 2013년 250만2000명, 2014년 257만2000명, 2015년 260만8000명, 2016년 269만6000명 등으로 연평균 2.4% 증가했다고 밝혔다.

성별로는 2016년 기준 총진료인원은 남성 116만3000명, 여성 153만

‘2011~2016년 일자목증후군 질환’ 조사 2011년 239만7천명→2016년 269만6천명

3000명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1.3배 많았다. 10만명당 인원은 여성이 6069명, 남성은 4559명으로 여성이 남성을 크게 앞질렀다.

연령별로는 50대가 64만3000명(23.8%)으로 가장 많았고 40대(56만5000명, 21.0%), 30대(41만2000명, 15.3%) 순이었다.

남성은 50대(24만8000명, 21.4%)가 가장 많았고 40대(23만9000명, 20.6%), 30대(20만2000명, 17.4%)순,

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통증에도 취약하게 된다. 하지만 근래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 되면서 발생 연령이 점차 젊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자목증후군’을 치료치 않고 방치할 경우 “목부위 통증뿐 아니라 두통이나 어깨통증까지 유발할 수 있고 나이가 들면 구조물들의 비가역적 변화를 야기하고 통증은 더 심해질 수 있다”며 “특히 목척추나 디스크 등의 퇴행성 변화를 조기에 진단받았을지라도 심한 경우 경추척추증과 같은 신경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스스

광주 지역 법조계 성범죄 실태조사

광주여성변호사회가 성문화개선을 촉구하는 미투(#MeToo·성폭력 피해고발)운동 확산을 계기로 지역 법조계 성범죄 실태조사에 나섰다.

광주여성변호사회는 오는 28일까지 지역 여성 변호사 80여명과 법무법인·법률사무소 사무직원 45여 명을 상대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성희롱·성폭력 경험·목격 여부, 대응법, 문제 제기를 했을 당시 상대방 반응과 업무·관계상 변화,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등을 묻는 조사다.

온라인 설문지로 조사가 진행되며, 피해 사실은 익명으로 처리된다.

여성변호사회는 ‘성폭력·성차별에 대한 인식 변화’와 ‘문화·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같은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3년 간 지역 법조계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이 성범죄(권력형 성추행·폭력 포함)를 당하거나 본 사실이 있는지, 주변의 잘못된 시선으로 또 다른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는지, 법조인들이 올바른 젠더 의식을 갖췄는지, 예방 매뉴얼은 마련돼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여성변호사회는 실태조사를 마치는대로 ‘성범죄 대응 전담기구(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센터 등) 설치 여부’도 논의할 방침이다.

주준정 기자



봄소식 전하는 흥매화 봄을 재촉하는 비가 잠깐 내린 25일 오후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활짝 핀 흥매화를 감상하고 있다.

내년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등 의무 표시

내년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산란일자)와 생산자 고유번호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축산물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에게 달걀의 신선도, 생산환경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유통되는 달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고시 주요 내용은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 표시 의무화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식육 함량 표시 방법 개정 ▲아미노산 사용량 표시 방법 및 주의사항 표시 신설 등이다.

소비자가 달걀을 구입할 때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록 등 동안 달걀 껍데기에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을 표시했던 것을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산란일은 닭이 알을 낳은 날로 산란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체집한 경우 체집한 날을 산란일로 표시할 수 있다. 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 시 달걀 농장별로 부여된 고유번호로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사이트에서 달걀에 표시된 고유번호로 달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사육환경 번호는 닭을 사육하는 환경에 따라 구분되며 1(방사 사육), 2(축사내 방사), 3(개선된 케이지), 4(기존 케이지)와 같이 각 사육환경 해당번호로 표시해야 한다.

생산자 고유번호는 2018년 4월25

일부터 사육환경 번호 표시는 2018년 8월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는 2019년 2월23일부터 시행된다.

소비자에게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햄 또는 소시지 등과 같은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식육 함량 표시방법을 품목제조보고서(수입신고서)의 원재료 배합비율 그대로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명확하게 했다. 다만 물이 대부분 제거되는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수육 등의 유형은 물을 제외한 배합비율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섭취량이 제한돼 있는 식품원료인 아미노산을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소비자 안전을 위해 주표시면에는 아미노산 함량(중량)을, 소비자 주의사항에는 ‘일일섭취량(16g) 및 1회 섭취량(4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를 표시하도록 표시기준을 신설했다.

“알 20개 낳았다” 인도네시아 소년 주장

인도네시아의 한 10대 소년이 지난 2년 동안 알 20개를 낳았다고 주장해 의료진들을 당황케 하고 있다.

최근 영국 데일리메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고와 지역에 사는 ‘아크말’이라는 이름의 14살 소년은 지난 2016년부터 자신이 꾸준히 알을 낳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크말의 아버지 ‘루슬리’도 자신의 아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루슬리는 “지난 2년간 내 아들은 알 18개를 낳았다. 그리고 오늘 2개를 더 낳아 총 20개가 됐다”면서 “첫 번째 알을 깨 보았는데, 안에는 노른자만 있었고 흰자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달 후 다른 알을 깨 봤더니, 노른자는 없고 흰자만으로 채워져 있었다”고 했다.

이로 인해 소년은 몇 차례 입원을 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의료진이 보는 앞에서 알 2개를 낳기도 했다.

의료진이 소년의 골반 부분을 엑스레이 촬영한 결과, 직장이 위치한 부근에서 알 모양의 불체가 찍혔다.

그러나 의료진은 “과학적으로 인간의 몸에서 알이 형성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특히 소화기관에서는 더욱 그렇다”라고 설명했다.

의료진은 “소년이 알을 고의로 자신의 직장에 넣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년이 알을 넣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본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소년의 아버지는 의료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왜 그 애가 그런 일을 하겠냐”며 부인했다.

의료진은 소년을 병원에 격리 조치했다. 병원 측은 그에게 어떤 알도 제공하지 않을 계획으로 소년이 정말로 알을 낳는지 지켜볼 방침이다.

美 약천후와 홍수로 미주리주 비상사태 선언

미 미주리주의 에릭 그라이튼스주지사는 주 남부지역의 폭우와 홍수 위험에 대해 24일(현지시간) 주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라이튼스 지사는 국립기상청이 미주리 남동부 대부분 지역에 대해 홍수 경보와 주의보를 발령한 이날 저녁 비상사태 선포명령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주리 주는 주 방위군을 동원해서 폭식 발생할 기상 피해로부터 각종 시설과 자원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미주리주 남부는 여러 군데 도로가 홍수로 인해 폐쇄된 상태이며 더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다.

미 국립기상청은 중부 평원지대와 남부 4개주의 기상이 악화되면서 이 지역에 토네이도 경보도 내렸다. 토네이도 경보는 24일 저녁 6시를 기해 아칸소주 대부분과 텍사스주 북동부, 오클라호마 남동부, 루이지애나 북서부에 내려졌다.

이 지역은 시속 100km 이상의 강풍과 직경 5cm가 넘는 달걀 크기의 우박이 예보되어 있다.

인디애나주도 폭우로 북서부 캔카키 강을 따라 일부 제방이 넘칠 가능성이 있어 지방 관리들은 이 지역 30여가구의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이 지역의 홍수는 폭우와 눈녹은 물이 며칠째 범람하면서 격류가 흘러들어가 미시간호와 위스콘신주에 이르는 오하이오강까지 폭이 넘칠 우려를 낳고 있다.

강도든 집서 주인 지키다 총맞은 ‘영웅견’

미국에서 강도로부터 16세 주인을 지키려다 심각한 총상을 입은 견공을 살리기 위해 모금 운동이 열렸다.

23일(현지시간) KTLA방송에 따르면 워싱턴 주 디모인에 사는 더글러스 켄킨스 가족은 반려견 렉스(2)의 총상 치료를 위해 온라인상으로 모금 활동을 진행했다.

렉스는 지난 21일 오후 집에 들어온 강도들에 용감하게 맞서다가 여러 차례 총을 맞았다. 강도를 피해 2층 방의 옷장에 숨어 있던 16세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켄킨스 씨는 “아이가 집에 혼자 있었는데 누가 침입했다”며 “아이는 수상한 소음과 대화소리를 듣고 위층에 올라가 옷장에 숨었다. 그 안에서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했다.”

렉스는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가 강도들을 막아 섰다. 범인들은 렉스를 쫓아낸 뒤 아이가 숨어 있는 위층으로 올라왔다. 렉스는 있는 힘을 다해 강도들을 쫓아 올라왔다.

범인들이 렉스에게 수차례 총알을 발사해 렉스는 목, 다리, 무릎 등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이윽고 경찰이 도착했지만 강도들은 도주한 뒤였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은요... 자태치로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 중 자체조사할 때, 자발적으로 응진 민력군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운영하지 않으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